

‘넘치고 무너지고’ 광주·전남 폭우피해

시간당 최고 66.4mm 기록적 폭우 쏟아져

주택 30채·농경지 378ha 침수·범람 피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6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30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8일부터 전남까지 이틀간 신고된 비 피해는 146건이다.

전날 오후 2시56분께 광주 남구 행암동 모 중학교 후문 인근 담벼락을 지탱하는 축대 일부(높이 10m·너비 40m)가 폭우에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정·교육당국은 붕괴 사면을 방수 천막으로 덮고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 응급 복구 작업을 마쳤다.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에는 동구 용산동 한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 인근에 주택·상가가 없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서구·남구 일대에선 주택 16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북구 중흥동 일대의 주택·상가도 일시 침수됐다.

북구 석곡동에서는 집 주변 석축 옹벽이 일부 붕괴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다른 주택 2곳에

서는 담장이 무너졌다. 북구(망월·석곡·화암·금곡·청풍동)와 광산구(등암·고룡·신촌동) 일대의 논과 밭이 물에 잠겼다. 정확한 피해 면적은 집계 중이다.

남구 주월동·북구 풍향동에서는 전봇대가 넘어졌다. 도심 곳곳에서 가로수 쓰러짐 피해도 발생, 5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84곳도 침수되거나 빗물이 역류해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배수 불량·하수구 역류 등 기타 피해 접수도 25건에 달했다.

황룡강 장록교 인근에는 전날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다.

전남에서도 주택·도로·농경지 침수와 제방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영광에서는 주택 14채, 교회·상가 등 건물 4채가 침수됐다. 군서면 일대 축사 3곳도 물에 잠겨 병아리 3만 마리 가량이 폐사했다.

한때 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등 도로 8곳이 노면 위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긴급 배수 작업도 펼쳐졌다.



광주·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9일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 자락에서 원효사 주차장 주변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장성에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삼계면 한 야산서 인근 주택으로 흙탕물이 흘러내려 복구를 마쳤다. 삼계면 수산리 마을 안길 석축 1곳도 11m 가량이 유실되며, 삼서면 소하천 제방도 일부 무너졌다.

화순 백야면 송단리 한 야산에서는 토사·수목이 도로로 흘러 내려 응급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다.

또는 378ha가 침수·도복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영광 363ha, 함평 15ha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시·전남도는 구체적인 호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 내 국립공원도 출입이 제

한되고 있다. 무등산·지리산·내장산공원은 전날부터 입산이 전면 금지돼 있다. 월출산·다도해해상 등 공원 2곳은 일부 탐방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화순 북면 227mm, 광주 조선대 196.5mm, 영광 193.4mm, 장성 상무대 170mm, 곡성 162.5mm, 나주 127.5mm, 장성 124mm, 함평 113mm, 담양 봉산 102mm 등이었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영광이 66.4mm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조선대) 53.5mm, 곡성(석곡) 48.5mm, 장성(상무대) 42.5mm 등으로 나타났다.

신봉우 기자

강도 행각 뒤 경찰관에 흥기 휘두른 2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심야시간대 상인들을 흥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차평동 한 식당·편의점 등지에서 홀로있는 여성 종업원·업주를 흥기로 위협, 현금 91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으며, 흥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짜고짜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 주변에 있던 금고에서 서성였으며,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흥기를 들이대 31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 250m 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침입, 업주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60만 원을 가로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뒤늦게 경찰에 흥기를 휘둘렀으며, 검거 과정에서 지구대 소속 B경사가 손가락을 베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돈 훔친 말레이시아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30일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노인이 자택에 놓아둔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말레이시아 국적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남구 B(70)씨의 주택 안방에 보관해둔 현금 106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수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고수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단에 연락했다.

A씨는 교통비 10만 원·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과 함께 범행에 한 차례 가담했다.

“일감 꿀길까 봐”확진 뒤 달아난 60대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광주 118번 확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직후 밤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격리가 되면 일감이 꿀길 것 같다’는 이유로 확진자 관련 격리 입원 및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보건소의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배회하다 약속된 일감이 있어 영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디지털성범죄 3명 구속·125명 검거

광주경찰이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4개월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125명을 붙잡고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뒤 4개월동안 총 251건을 수사했으며 12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의 노출 영상을 받아 제작한 뒤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10대가 29일 구속됐다.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1900여개를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10대와 아동으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 받은 20대가 지난 4월 법의 처벌을 받게됐다.

검거자 125명 중 구매자가 88명(70%)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제작 등 9명(8%), 단순 소지 등 28명(22%)인 것으로 분석됐다.

폭우에 물바다로 변한 영광 벗논...주저앉은 농심

7월에만 2차례 침수돼 망연자실...북구에 안간힘



30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벗논에서 한 농민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영광은 백수읍을 포함, 농경지 363ha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벼가 순식간에 잠겨버렸어. 속만 썩어 문드러지지.”

30일 오전 전남 영광군 백수읍 약수길 일대 벗논에서 농민 김모(65)씨가 고개를 가로지르며 망

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전날 오전 8시44분을 기점으로 시간당 66.4mm의 폭우가 내린 탓에 벗논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다. 영광에는 198.5mm의 비가 쏟아졌

다. 김씨의 논은 백수읍 바다와 직선거리로 2m가량 떨어진데다 지대가 낮은 쪽에 있는 터라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벼는 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사이사이로 부유물이 나뒹굴었다. 벼 앞면과 옆 가장자리도 곧추 서지 못하고 시들시들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다.

유수 형성기와 출수 사이인 점을 고려해도 이삭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논으로 달려왔지만, 순식간에 논이 강처럼 변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삼으로 독방 일부를 견어내고 배수 기계를 돌려도 빗물은 빠지

지 않았다. 속수무책이었다.

보름 전에다 백수읍 일대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번 달에만 2차례의 침수 피해를 봤다.

김씨는 지난달 초 벼를 심어 경작 중인 논 6.6ha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날 오전 이따금 비가 내리다가 그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통 이틀 이상 벼 전체가 물에 잠기면 20%가량이 이삭·뿌리 고사, 알곡 수 감소, 출수 지연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살농사 46년째를 맞아 같은 달에 2차례 침수 피해를 본 건 처음”이라며 “밀물과 썰물의 높이가 차이가 가장 작을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하루 더 비가 쏟아졌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 전부 빠지는 대로 벼의 상태를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폭우에 대비한 (농경지)배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